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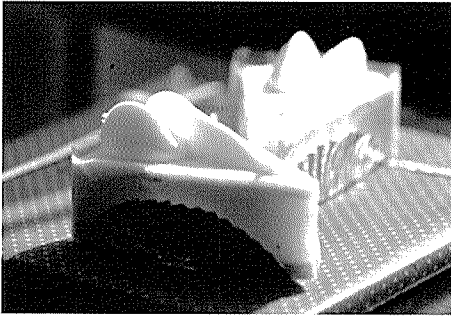
# 젊은 셰프의 열정이 숨쉬는 곳 '블랑제리 드 르방'

17년 경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 직원만족 점포를 꿈꾼다

Boulangerie de Levain



- ① 짙은 브라운 계열로 처리한 외관은 중후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 ② 180여가지의 다양한 제품들이 짜임새있게 배치된 매장 내부.
- ③ 쇼케이스 안에 독특하게 디스플레이된 무스, 조각 케이크 등이 다양한 데코레이션과 컬러로 고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 ④ 르방은 몽블랑, 허바나, 미루가나 등 10여가지의 수제 초콜릿 매출이 높은 편이다.



▲ '뉴욕 치즈케이크'. 르방은 주변 아파트 단지 내 고객들의 생활 수준이 높은 편으로 어느 지방 도시와 달리 조각 케이크의 판매가 높다.



▲천장에 Built in(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에어컨은 16평 공간의 매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매장에 설치된 조명은 저녁에 더욱 좋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같은 건물 2층에 자리잡은 24평 규모의 공장에는 별도의 에어컨을 설치, 상시 5°C 정도로 유지시킨 파이실이 마련돼 있다.

'꼭 한번 보고 싶은 제과점 만들기'를 꿈꾸는 한 젊은 셰프의 열정이 느껴지는 곳, 블랑제리 드 르방(Boulangerie de Levain)이 지난 10월 10일 분당 이매촌 아파트 단지 내에 문을 열었다. 경력 17년의 제과 기능장 정찬웅씨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있게 준비해 오픈한 이 제과점은 효모라는 뜻의 불어 르방(Levain)이라는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오너 셰프 정찬웅씨의 빵에 대한 열정이 묻어난다.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주변 4,500 세대 아파트 주민들을 주고객층으로 고려해 짙은 브라운과 화이트 컬러로 처리한 유럽풍의 인테리어는 차분하고



▲ 생산된 제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포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매장은 16평으로 그다지 넓지 않지만 자연 발효빵과 무스, 케이크, 수제 초콜릿 등 고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180여가지의 다양한 제품들을 짜임새있게 배치시켜 놓았다.

빵 제품군을 강화하고자 했던 정찬웅 셰프의 처음 생각과는 달리 자연 발효빵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낮아 지금은 무스, 조각 케이크류와 초콜릿 제품의 매출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개량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피더스 유산균 분말과 직접 배양하는 효모를 사용해 생산한 빵으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계

획은 향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결실을 맺어나갈 것이다.

블랑제리 드 르방의 특징으로는 포장을 빼놓을 수 없다. 포장과 판매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고용한 것은 맛에서만 아니라 고객만족 서비스 면에서도 뒤쳐질 수 없다는 오너 셰프의 경영 철학이 엿보이는 점이다. 생산 제품을 보다 가치있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시켜 판매해야 한다는 전략 아래 자체 고안한 포장재와 외국에서 직접 들여온 수입품을 사용해 르방만의 개성을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10명의 기술인들이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 정찬웅 셰프는 보다 나은 직원들의 복지와 기술 교육 지원이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고 이것이 곧 좋은 제품 생산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제품 생산 못지 않게 직원 만족 경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오너 셰프의 말은 르방의 밝은 미래를 기쁘게 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블랑제리 드 르방은 매장 앞쪽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 고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열 계획이다. 일례로 오는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대형 헥센하우스를 제작하고, 초콜릿, 설탕 공예품을 함께 전시해 홍보할 계획이며, 향후 제품 시사회, 주부 강습회, 외국인 기술자 초빙 실연 등 다양한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인 출신의 오너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슴속에 간직해 오고 있던 포부를 이제 막 펼치기 시작했다. 고객과 직원 만족을 위한 셰프의 열정과 노력이 식지 않는 한 블랑제리 드 르방은 꼭 한번 가고 싶은 분당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취재·강인옥 / 사진·안성철〉



▲효모를 직접 배양해 제조하는 자연 발효빵 '팡 드 캄파뉴'.  
▶2층 공장에서 1층 매장으로 제품을 손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설치된 덤웨어.

